

김민전 ‘백골단 회견’ 등 극우행태에 “중도층 이탈할 것”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 “탄핵집회 참석자, 중국인”
윤상현 “계엄, 고도의 통치행위”
전광훈 목사 집회서 큰 절 등 ‘논란’
전문가 “여론 호도하며 강성층 결집
與 지도부, 배척·단호한 행동 필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다. /뉴스1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일으킨 ‘백골단 기자회견’ 사건 등으로 당내 극우적 주장이 어떠한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공식석상에 드러내는 행태가 두드러져, 중도층 포섭은 요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이들은 하얀 헬멧을 쓰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는데, 자신의 예하조직의 이름을 ‘백골단’이라고 소개했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학내 시위자들과 시위 군중들을 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 구성된 사복경찰단을 뜻하기도

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운영한 정치 강파 집단을 뜻하기도 한다. 전두환 정

권 당시 백골단은 하얀 헬멧과 청색 자켓을 입고 시위대 대오를 흐트러 놓는 역할을 맡았으며 당시 독재 정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기자회견 이후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질의를 경청하지 않고 잠에 든 모습이 카메라 포착되면서 ‘잠자는 백골공주’라는 오명을 얻었다.

김 의원은 이미 진행한 기자회견을 철저히 기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지난 10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탄핵 집회에 참석한 중국인이고 탄핵에 찬성한 한국인들은 국가전복에 동조한 것’이라는 주장과 출처 불명의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신봉하는 가운데, 여당 의원까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선을 넘는 극우적 행태를 반복하면 당의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징계기준은 좀 잘 안다”며 “(제가) ‘양두구육’, ‘신구부’라는 말을 썼다고 공공롭게 지금도, 당시도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이 주도한 의총에서 윤리위에 징계요청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때리는 기준이다. 국회에 백골단을 들이는 행위는 왜 징계 대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백골단 기자회견에 대해 적절하진 않으나, 당사자가 사과했으니 징계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의 이외에 5선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해 큰 절을 올리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이 과거 한동훈 지도 체제에서 중도층에 다가가는 전략을 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확장성에는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12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는 것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반사로 얻게된 이득이다. 마치 극우적 행동이 옳아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론을 호도하면서 자기 강성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계엄 쿠데타와 똑같은 행동”이라며 “결과적으로 수권정당과 중도 확장과는 거리가 먼 일이고, 중도층이 거부감 갖고 이탈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배척하려는 단호한 행동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野6당, 내란특검법 재발의... 與 “자체수정안 논의”

野, 與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 수용
갈등여지 최소화해 이탈표 공략
與, 수사범위 6시간 한정 ‘논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내란 특검법’ 재발의와 처리를 두고 이번 주 신경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제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새로 발의된 내란특검법은 여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대부분 수용해 갈등여지를 최소화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새 특검

법이 처리된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후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추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추천하도록 하는 ‘비토권’도 없었다. 부결된 내란특검법에는 내란행위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으나, 새 특검법에선 내란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행위와 관련해서 인지된 사건으로 확장됐다.

특별검사와 파견 공무원도 각각 40명에서 30명, 80명에서 60명으로 줄였고 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도 90일에서

70일로 줄였다. 또한 새 특검법은 압수 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군사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과 관련해선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여당 입장도 반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발의 특검법에 대해 “외환죄가 포함되는 등 수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준비해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4일 혹은 16일에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

시간까지 한정할 자체 수정안을 검토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6시간 내란 특검법이 웬 말인가. 내란 특검법이 아니라 내란 은폐법”이라며 “내란죄가 뺄려야 마감 세일이나”고 비판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6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검토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없다”면서 “현재의 민주당 안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은 건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법사위와 소위를 통해 그 발언들이 다 공개되어 있다. 즉시 논평을 철회한다면 별도로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겠다”고 반박했다.

/박태홍 기자

원화 가치, 전쟁 중인 러시아 수준 폭락... “국정 정상화 시급”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절하율 -5.3%

〈세계 주요국 통화의 달러 대비 환율 변동률〉

(단위 : 각국 통화 단위, %)

기간/국가별 달러대비 환율·변동률	대한민국 (KRW)	러시아 (RUB)	유로 (EUR)	영국 (GBP)	일본 (JPY)	중국 (CNY)	30개국 통화 평균 변동률	
2023년 12월 말	1,288.0	89.4891	0.9059	0.7855	141.04	7.1102	-	
변동률	2023년 12월 말	+0.2	+0.5	+1.4	+0.9	+5.1	+0.4	-1.2
	2023년 중	-1.8	-18.2	+3.1	+5.4	-7.0	-2.9	-4.4
2024년 12월 말	1,472.5	113.7296	0.9659	0.77910	157.20	7.2994	-	
변동률	2024년 12월 말	-5.3	-6.4	-2.1	-1.7	-4.7	-0.8	-2.3
	2024년 중	-12.5	-21.3	-6.2	-17.	-10.3	-2.6	-8.9

* 미 달러화 대비 절상(+), 절하(-)율, 원/달러 환율은 증가 기준, 타 통화 환율은 블룸버그 증가 기준 /한국은행 ECOS, Bloomberg

지난해 12월 고환율로 원화 가치가 5% 넘게 하락해 주요국 중 화폐 가치가 가장 크게 절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가치는 전쟁 중인 러시아의 루블화 다음으로 주요 통화 중 약세를 나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원 달러 15시30분 종가 기준, 타 환율은 블룸버그 종가 기준)은 지난해 11월 말 1394.7원에서 12월 말 1472.5원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절하율은 -5.3%로 계산됐다.

이는 세계은행의 2023년 명목 GDP(국내총생산) 기준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의 통화 가운데 러시아 루블화를 제외하고 가장 큰 폭의 가치 하락을 나타

낸 것이다. 2024년 11월~12월 간 루블/달러 환율은 106.5루블에서 113.7루블로 올랐다. 12월 중 가치 절하율이 -6.4%에 달해 원화보다 1.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은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기축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 강세가 두드러지

기는 했지만, 월간 원화 가치 절하 폭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어 주요국 통화 중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3일 주간 거래를 1402.9원으로 마친 원/달러 환율은 당일 밤 계엄 선포 직후 야간 거래 장중에 1441.0원까지 급등했다. 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메시지가 나온 같은 달 19일 1451.9원까지 추가로 상승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지난달 27일 장중 1486.7원까지 치솟았고, 30일 1472.5원으로 한 해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연말 주간 거래 증가 기준으로는 1997년 말 1695.0원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미(美) 달러화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6개 통화 중 유럽연합(EU) 유로화는 지난 12월에 -2.1%의 변동률을 보였으며 일본 엔화는 -4.7%, 영국 파운드화 -

1.7%, 캐나다 달러화 -2.6%, 스웨덴 크로나화 -1.6%, 스위스 프랑화 -2.9% 등으로 일본 엔화를 제외하고 모두 주요국 평균 변동률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의 변동률을 보면 중국, 브라질, 멕시코, 호주, 인도네시아 등 모두 원화보다 절하율이 낮았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의 높은 수출 의존도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자극이 어려워 경기침체에 물가상승이 더해지는 경제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임광현 의원은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이탈과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수출 감소, 외화 부채이자 부담 증가 등의 당면한 경제충격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국제수지 균형을 이루는 시장 안정화 조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국정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